

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, 물관리 현장설명회 개최

남원=양준천 기자 | 승인 2025.04.25 11:31



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(지사장 김민수)는 지난 23일 지사 운영대의원, 수리시설감시원, 지역농업인 등 7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2025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(지사장 김민수)는 지난 23일 지사 운영대의원, 수리시설감시원, 지역농업인 등 7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2025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.

이번 물관리 현장설명회는 가뭄상황 발생에 따른 지역별 가뭄상황 및 대응현황과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에 따른 농업용수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, 공사와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.

23일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관내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65.9%로 이양기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이양후 가뭄시 보급수 공급이 어려울 것

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절수·절약 홍보를 하고 있으며, 다음달 11일까지 시험통수를 마치고 12일부터 농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.

김민수 남원지사장은 “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제거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남원=양준천 기자

저작권자 ©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남원=양준천 기자